

국가 지도자의 책무

신학박사 조 덕운

- [시편 82 편 1-8 절] 1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2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3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4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꺾도를 벗어났도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7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도다.
8 오 하나님이며,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이다

지난 3 월 9 일의 한국 대선 결과로 여러 해 정권을 잡아 왔던 민주당으로부터 보수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제 5 월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재정비하고 국력을 복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는 수차 이메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국가의 통치 현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의거하여 나라를 통치하는가에 따라 축복 혹은 재앙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입각하여 설파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0 년 5 월 20 일자 메시지 [세계 정치와 하나님(1)- 아래 URL]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www.douglaschoministry.net/wp-content/uploads/2020/06/20200520_%EC%84%B8%EA%B3%84%EC%A0%95%EC%B9%98%EC%99%80-%ED%95%98%EB%82%98%EB%8B%981.pdf

다시 강조하건데, 시편 82 편은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임명하셨던 책임 천사들을 불러 모아 회의하면서 잘못된 책임자들을 책망하고 징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 즉 인간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책임 천사들의 통치 수행 상태에 관심을 가지실 뿐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 상과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책임 천사들을 판단하셨지만,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나서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에 무관심하시다고 불평하는 일은 타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한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국가 통치 원칙들을 분명히 세우고 그에 따라 나라를 운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로서 성공하거나 실패했는가를 학습해 본다면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절은 올바른 법 질서와 사회 정의의 수립을 강조하심을 봅니다. 3-4 절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경제 정의 등 십계명의 국가적 구현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 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적인 책망이자 비판입니다.

[시편 82: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흔히 국가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 가운데서 오직 인간적 판단, 잘못된 정치적 논리, 소위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s]’을 기준으로 정책과 통치 방향을 결정하고 통치 행위를 정당화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과 측근들의 치부와 권력 유지를 위해 어두움 가운데서, 즉 국민이 알지 못하게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태를 매우 미워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통치 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행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 세우신) 궤도를 벗어났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현금 미국 정부의 통치 행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많은 오류가 있으며, 국가 사회의 기본 궤도를 벗어나 탈선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나라의 통치자와 그를 보좌하는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거론하고 그 원칙들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통치 행위로 구현하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사랑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40 년 통치 기간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우신 원칙들을 통치자들이 존중하고 이들을 나라의 통치 이념과 정책으로 구현하기를 간절히 희망하시며,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왕과 같은 통치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한국의 대통령과 통치 세력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그의 원칙들을 존중하여 국가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얻고, 그분의 훌륭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12:24-25]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대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정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은 단기적, 자기 중심적인 선택 기준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가지신 고귀한 소망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는 겸허한 자세가 앞서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 세계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보호하심을 받아 종말의 때에 온갖 위험과 재난, 전쟁 등의 곤경에서 지켜주심을 받으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에 그의 편으로 판결을 받아 주님이 다스릴 천년 왕국의 세상에서 빛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12:2-3]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www.douglaschoministry.net

Please send financial support to Douglas Cho Ministry using PayPal, send your contribution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82234498000 [예금주: 조덕운]